



[뉴스]  
현대백화점 그룹  
2020 경영전략  
02



Economy

↑ 코스피	2223.12 (+22.05)	↑ 코스닥	682.34 (+6.27)
→ 금리 (미국 3년)	1.30 (0.00)	↓ 환율 (원/달러)	1181.60 (-5.50) (11일)

<4대 금융지주 2019년 배당>

구분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주당배당금	1850원	2210원	2100원	700원
배당총액	8839억원	8611억원	6165억원	5056억원
배당성향	26.97%	26%	25.60%	26.55%

/에프앤가이드

# 外人 배불린 은행 배당 4대금융 年 1.7조 유출

지난해 배당금 2조8000억 돌파 배당, 순이익 보다 가파르게 늘어 외국인 지분율 높아 자본유출 우려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이 지난해 2조8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실적이 정상화된 2011년 9799억원(신한금융지주 우선주 제외)에서 8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금융지주들이 최근 몇 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배당은 순이익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을 자제토록 했던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친 결과다.

다만 고배당 정책의 수혜가 외국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들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60% 이상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019 회계연도 배당금 총액은 2조8671억원이다. 전년 2조5208억원 대비 3463억원(13.7%) 늘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이 각각 8839억원, 8611억원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의 배당금 총액은 각각 6165억원(중간배당 포함), 505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으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8년 203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는

증가폭이 3463억원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적이 개선된 2011년 9799억원과 비교하면 192%나 늘었다.

금융지주들의 실적도 개선됐지만 배당은 더 많이 늘었다.

작년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1조278억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지만 지난 2011년 8조8322억원 대비 증가율은 24.9%에 그친다.

실적보다 배당 증가율이 더 가파른 이유는 배당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의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1년 10%대 초반에서 일제히 20% 중반대로 높아졌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이 26.55%며 ▲KB금융 26% ▲신한지주 25.97% ▲하나금융 25.6% 등이다. 순이익의 4분의 1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지난해 주가가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금융지주들 모두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만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날 기준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각각 67.38%, 67.71%로 70%에 육박하며, 신한지주도 64.61%에 달한다. 이들 3개 금융지주의 배당금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이 해외로 나간 셈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만 외국인 지분율이 29.96%로 높지 않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

현지시간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0'에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 상하 접히는 '갤럭시Z플립'... 폰의 새역사

###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 기기 사용성·사용자 경험 재정의 14일부터 전 세계시장 순차 출시

삼성 스마트폰의 새로운 10년을 알리는 신제품이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를 열었다.

전 세계 파트너와 미디어 3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을 비롯해 '갤럭시 S20', 최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Z플립은 상하로 접히는 방식으로 접었을 때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이며 펼치면 6.7형의 선명한 대화면이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플립에 마이크로컷팅 기술을 활용한 '하이드어웨이' 힌지를 적용해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 플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폼팩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Z플립을 선보이게 됐다"며 "폴더블 카테고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갤럭시Z플립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Z플립은 14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미러 퍼플, 미러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65만원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는 총 3종으로 1억800만 화소 카메라와 6.9형 디스플레이의 '갤럭시S20 울트라', 6400만 화소 카메라와 각각 6.7형, 6.2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S20+', '갤럭시S20'이다. 모두 최신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며, 더 빠른 네트워크 접속 시간과 데이터 속도를 자랑하는 최신 5G 표준인 단독모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는 혁신적인 폴딩드 렌즈를 적용해 10배 줌으로 촬영을 해도 화질 손상이 없으며, 최대 100배 줌 촬영이 가능한 '스페이스 줌'을 지원한다.

갤럭시S20은 3월 6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국내에

서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갤럭시S20 5G는 128GB B 모델로 코스믹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 화이트, 클라우드 핑크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24만8500원이다.

갤럭시S20+ 5G와 갤럭시S20 울트라 5G는 256GB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S20+ 5G는 코스믹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 화이트, 아우라 레드, 아우라 블루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35만3000원이다. 갤럭시S20 울트라 5G는 코스믹 그레이와 코스믹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59만5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고 양방향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를 탑재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도 함께 공개했다. 갤럭시 버즈+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1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으며 케이스를 통해 추가 충전 시 최대 22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버즈+는 블랙, 화이트, 블루 색상으로 오는 14일 공식 출시하며 가격은 17만93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후보에 권광석

### 이사회 거쳐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차기 우리은행장의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관련기사 3면>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11일 김정기 부부장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이동연 우리FIS 대표이사 등 최종면접 대상자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후 권 대표를 최종 행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대표는 1963년생으로 1988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IB그룹 겸 대외협력 단 집행부행장을 역임한 후 우리PE 대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표이사를 거쳐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과거 우리금융지주에서 전략·인사 등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한 점과 은행의 IB

업무와 해외IR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글로벌 전략 추진에 최적임자라는 점을 임추위로부터 인정 받았다.

특히 권 대표는 강한 추진력, 출선수범하는 자세, 다양한 업무 경험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과생결합펀드(DLF)사태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손 회장과 무난히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임추위에서 확정된 행장 후보는 우리은행이사회를 거쳐 3월에 열릴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